

다문화교육과 교과서

- 한국과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비교 분석*



전영은
기독교간호대학 조교수

1. 들어가며

1995년 국제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가 본격화되었다. 이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데올로기의 붕괴에 따른 세계경제 체제 재편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세계인의 생활양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국제화 시대부터 언급되던 지구촌 시대가 현실화된 것이다. 세계화는 세계 시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켰고,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사회의 발달도 세계화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문화가 상품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다양한 문화들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기 시작하였다. UNESCO는 문화 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일부 이민 국가에서 보여지듯 다문화 사회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민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사회의 양상은 국가마다 달랐다.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다문화 현상이 사회 변화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었다. 최근 그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학령 인구

* 이 글은 필자의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연구: 한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교육문화연구, 26권 1호, 2020)의 내용을 특별기획 주제의 성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에 접어들어 학교에 전·입학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이 새롭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다문화 사회를 겪어 왔던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처음 겪는 변화에 당황하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에 2006년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다문화교육 관련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에서 다문화교육 지도에 힘써야 한다고 기술했고, 사회, 도덕, 국어 등 모든 교과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성취기준의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다루고 있다.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는 다문화적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조영달 외, 2009). 사회과는 교육 목표와 내용의 구성이 다문화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과로 인식되고 있다(정경연, 황수경, 2014; 오은순 외, 2008). 더군다나 세계화 시대 다문화적 시민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과는 다른 교과들보다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모두 다룰 수 있다. 설규주(2012)도 사회과 교과서가 다른 교과에 비해 다문화 관련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훌륭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은지용, 모경환, 2018; 윤재운, 2018; 강진웅, 2016; 정경연, 황수경, 2014; 조대훈, 2014; 설규주, 2012).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과 독일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가 다문화 관련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국제 비교를 하고자 한다. 독일은 한국과 비슷하게 과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부분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었다. 한편 2000년에는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하노버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CeBIT 박람회에서 독일에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 OECD 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34개 선진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이민 국가가 되었다.¹⁾

1)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bpb.de/themen/soziale-lage/demografischer-wandel/196652/einwanderungsland-deutschland/>, 2022년 5월 1일 인출)

2. 우리나라와 독일의 다문화교육 정책

한국은 2002년 중반 이후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2006년 5월 교육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중앙부처에서 다문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문화교육 정책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학교 밖에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등의 중앙정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및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이민자 통합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및 지원하였다(강동관 외, 2018). 학교 안에서는 교육부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및 이해제도를 위해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2022년 현재까지 매년 초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관련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다문화 특별학급 및 예비학교 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교육부, 2022).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내용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교과서에도 다문화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정문성, 전영은, 2015). 그러나 박윤경(2011)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아직까지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공식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

이정우(2012)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인종, 아시아, 국제결혼 가정 중심의 다문화 사회를 소개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제한적 접근과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연, 황수경(2014)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규주(2018)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사회 교과서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대응 방안 등을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일부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즉 한국은 매년 다문화교육 정책을 세우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문화 사회가 일천한 관계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55년부터 1973년까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포르투갈 등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노동력을 수입하였다. 당시 많은 수의 한국인도 광부와 간호사로서 독일에 머물렀다. 이들은 계약기간인 3년 동안 일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대부분 독일에 정주하였다. 독일은 1970년 증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일 사회 내 동화를 위한 외국인 교육(Ausländerpädagogik)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아짐에 따라 타문화의 고유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상호 문화 교육(Interkulturelle Pädagogik)을 실시하였다. 상호 문화 교육은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한 사회의 고유문화와 외래문화가 공존하면서 독특한 문화가 생성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다(전영은, 2018). 독일은 1995년 문교부 장관 회의에서 ‘학교에서의 상호 문화 교육’ 권고안을 결정한 이후, 상호 문화 교육을 모든 학생이 받아야 하는 일반 교육으로 규정하였다(정문성, 전영은, 2015). 독일은 다문화 사회의 역사가 한국보다 길고, 외국인 거주자의 규모도 커서 어느 정도 안정된 다문화 사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강동관 외, 2017).

3. 우리나라와 독일의 중학교 사회과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가. 현행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영역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대단원에서 다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문화 관련 목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다문화적 변화 등 최근 한국 사회의 변동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로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의 다문화 관련 성취기준

대단원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9사(일사)12-02]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9사(일사)12-02]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해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다문화적 변화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문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다문화를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다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한국 사회의 변동과 그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대응 방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현행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자체적인 교육제도와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되어 있어, 주별로 교육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사례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회와 교육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2016 개정 중등 I 수준 사회와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영역의 ‘독일로의 이민’ 대단원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로의 이민’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학생들은 독일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질서와 구조), 독일에게 있어서 이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민 정책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지(이익과 공익)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로 진술되어 있다. <표 2>는 2016 개정 중등 I 수준 사회와 교육과정의 ‘독일로의 이민’ 대단원 성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²⁾

표 2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016 개정 중등 I 수준 사회와 ‘사회’ 영역 교육과정의 ‘독일로의 이민’ 대단원 성취기준(7, 8, 9학년)

기본 수준(G) -하우프트슐레 및 베어크레알슐레 수준	중급 수준(M) -레알슐레 수준	고급 수준(E) -김나지움 수준
(1) 사전에 구조화된 자료의 도움을 받아 독일로 이민을 오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추진과 유인 요인).	(1) 독일로 이민을 오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추진과 유인 요인).	(1) 독일로 이민을 오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추진과 유인 요인).
(2) 독일의 인구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이주 배경, 연령 구성).	(2) 독일의 인구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이주 배경, 연령 구성).	(2) 자료를 이용해서 독일의 인구 구성을 분석할 수 있다(이주 배경, 연령 구성).
(3) 독일 이민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독일 이민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독일 이민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4) 통합 과정에서 주류 사회와 이민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공통적인 통합 정책).	(4) 통합 과정에서 주류 사회와 이민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공통적인 통합 정책).	(4) 통합 과정에서 주류 사회와 이민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문화적 개방성과 수용, 교육, 언어, 시민권법 설계).
		(5) 독일과 EU의 이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노동력 이동, 난민 정책, 가족 이주).

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중등 I 수준 사회와 교육과정(http://www.bildungsplaene-bw.de/site/bildungsplan/get/documents/lsbw/export-pdf/depot-pdf/ALLG/BP2016BW_ALLG_SEK1_GK.pdf, 2022년 5월 1일 인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2016 개정 중등 I 수준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이주자들이 독일로 이민을 오는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독일이 이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인구 구조와 연령 구성을 조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독일 주류 사회와 이민자 사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독일과 EU의 이민 정책을 다루고 있다. 독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배경과 결과를 다루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주류 사회와 이민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우리나라와 독일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우리나라와 독일의 다문화 교육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1 교과서 8권을, 그리고 독일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016 개정 중등 I 수준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3권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사회1과 사회2로 집필되었다. 이 중 다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는 사회1이다. 독일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학교 인증과 교사교육센터(ZSL)³⁾ 인증을 거친 교과서들이다.

가. 우리나라의 사회 교과서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1 교과서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은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대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대응, 다문화 사회의 공존 방안, 다문화적 변화의 원인과 현황, 다문화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 다문화적 변화의 대응 방안,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소제목으로 본문을 구성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다문화 사회가 주는 이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갈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학교인증과 교사교육 센터(ZSL) 홈페이지(<https://zsl-bw.de/Lde/Startseite/uebergreifende-themen/sbz-zugelassene-schulbuecher>, 2022년 5월 1일 인출)

표 3 —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1 교과서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

출판사	중단원	활동명	활동 내용(탐구 활동)
금성출판사	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문화 섬과 샐러드 볼	문화의 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의 섬을 찾아보기
동아출판	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노력	다문화 가족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구상해 보기
미래엔	2. 한국 사회의 변동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알아보기	다문화 사회의 공존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문화 정책 조사해 보기
박영사	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다문화 사회를 위한 노력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해 보기. 다문화 사회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기
비상교육	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	.
지학사	2. 한국 사회의 변동	다문화 사회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 토의해 보기
천재교육	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다문화 사회의 문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요	이주민의 상황에 대하여 역할놀이를 하고,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해 보기.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찾아보고 내용 소개해 보기
천재교과서	2. 한국 사회의 변동	다문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	그래프를 보고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야기해 보기.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토론해 보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서 교과서는 학습자들이 탐구 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신장의 방향에 맞추어 집필되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다문화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은 문화의 섬과 샐러드 볼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의 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의 섬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동아출판 교과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다

문화 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은 다문화 가족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련된 그래프와 기사를 보여주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있다.

미래엔 교과서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이유,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 및 부정적인 측면, 다문화 사회의 공존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 사회의 공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문화 정책을 조사해 보도록 하고 있다.

박영사 교과서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배경과 개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은 신문 기사와 국가 정책 보고서에 나온 그래프를 보고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안과 다문화 사회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해보도록 하고 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다문화적 변화의 원인과 현황을 소개하고, 다문화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은 따로 없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는 지원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지학사 교과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기술하였다. 탐구 활동은 다문화 가정의 주요 지표 변화와 결혼 이민자가 꼽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쓰고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을 토의해 보도록 하고 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배경과 대응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은 만화를 보여주고, 이주민의 상황에 대하여 역할놀이를 해 보고, 우리가 이주민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고 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및 제도

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변화와 다문화 학생 수의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야기해 보고,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고 있다.

나. 독일의 사회 교과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016 개정 중등 I 수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은 ‘독일로의 이민’ 대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분석 대상 교과서 중 두 권은 김나지움 사회 교과서이고, 한 권은 하우프트슐레 및 베어크레알슐레, 레알슐레 사회 교과서이다. 김나지움 사회 교과서에서는 ‘독일로의 이민 -우리 사회의 기회인가 위기인가?’와 ‘독일로의 이민’ 대단원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하우프트슐레 및 베어크레알슐레, 레알슐레 사회 교과서는 ‘이민 국가 독일-이주자의 통합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가?’ 대단원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⁴⁾

표 4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016 개정 중등 I 수준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 교과서의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

출판사	학교급	대단원	활동 내용(탐구 활동)
C.C. BUCHNER	김나지움	독일로의 이민-우리 사회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 사이에서 독일 이민의 배경을 설명해 보기 2. 2015년에 어느 나라에서 독일로 이민을 가장 많이 왔는지 그래프를 보고 설명해 보기. 독일로 이민을 오는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을 설명해 보기. 그래프를 보고 난민이 독일로 오는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을 모두 안에서 분석해 보기 3. 인구 변화와 전문 인력 감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기 4. 그래프를 보고, 다음의 진술을 평가해 보기: “이주자들은 독일 인구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글을 읽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 보기 6. 난민 이주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을 모두 안에서 토의해 보기 7. 난민이 독일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글에 대해 토의해 보기 8. 통합의 의미라는 글을 읽고 토의해 보기 9. 난민 위기에 대한 독일 총리 메르켈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진술을 평가해 보기 10. 시장, 이민전문가 등 전문가를 학급에 초대해서 전문가 인터뷰해 보기 11. 이주 노동 및 난민정책과 관련해서 독일 이민 정책의 규정을 정리해 보기 12. 글을 읽고 이민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토의해 보기 <p>이하 생략</p>

4) 독일의 경우,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대단원명이 교과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016 개정 중등 I 수준 사회과 ‘법’ 영역 교육과정에 ‘아동의 권리’ 대단원이 있다. 교육과정에는 ‘아동의 권리’라고 하였지만, 분석 대상 교과서 중 김나지움 사회 교과서(출판사 C.C.BUCHNER)에는 ‘평화와 인권 -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안전한가요?’로 기술되어 있다.

출판사	학교급	대단원	활동 내용(탐구 활동)
Cornelsen	김나지움	독일로의 이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을 읽고 세 사람이 왜 고향을 떠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기 2. 주변에 난민이 있는가? 난민과 접촉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조사해 보기 3. 그래프를 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의 출신국이 어디인지 찾아보기 4. 글을 보고 Adama와 Beauty가 독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유인 요인을 설명해 보기 5. 모국을 떠나 유럽으로 오는 난민들의 장점과 단점을 토의해 보기 6. 도착 국가와 모국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평가해 보기 7. 글을 보고 독일에서 망명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해 보기 8. 망명자와 난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기 9. 글을 보고 미성년 난민을 보호해야 이유를 설명해 보기 10. 독일의 인구 구조를 설명해 보기 11. “독일은 나이 들어 가고 있다.”라는 진술을 설명해 보기 12. “독일은 이민을 필요로 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자료를 보고 설명해 보기 13. 이주 배경을 고려해서 독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설명해 보기 14. “나에게 이민은 OO이다.”라는 문장을 완성하고 설명해 보기 15. 이민이 독일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설명해 보기 16. 외국인 인구의 구성을 설명해 보기 17. “우리는 노동자들을 불렀고, 그들은 왔습니다.”라는 이민에 대한 Max Frisch의 진술을 설명해 보기 18. 이전에 독일에 온 손님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고령화된 사람들의 삶을 연극의 한 장면으로 표현해 보기 19.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해 보고, 학급 안에서 발표해 보기 20. 통합 강좌는 이주자들이 독일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토의해 보기 <p>이하 생략</p>
C.C. BUCHNER	하우프트슐레, 베어크레알슐레, 레알슐레	이민 국가 독일-이주자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일로 이민 오는 이유를 나열해 보기. 모둠 안에서 이주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모형도 만들어 보기 2. 독일의 인구 구조와 여러분 학급 비교해 보기 3. 외국인?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독일인? 적절하고 모욕적이지 않은 단어를 찾아보기. 이민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인지 학급 안에서 찾아보기 4. 이주자의 통합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해 보기 5. 이주자들이 학교와 직업 현장에서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프를 분석해 보고, 모둠 안에서 결과를 함께 비교해 보기 6. 독일은 더 많은 이주자를 필요로 하나요? 아니면 적은 수의 이주자를 필요로 하나요? 모둠 안에서 카드를 작성해서 진술해 보고, 분석해 보기 7. 통합에 대해서 짝과 모둠 안에서 토의해 보기 8. 글을 보고 어떤 태도가 통합을 어렵게 하는지 토의해 보기 9. 학급 안에서 다음의 내용을 토의해 보기: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은 학교 공동체에서 더 조심해야 하나요? 통합은 그것들을 잘 기능하게 해 주나요? 10. 연방 이민과 난민센터(www.bamf.de)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독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기 11.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터키 출신 Sibel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보고, 갈등 상황 역할극 해 보기 <p>이하 생략</p>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회 교과서도 2016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분석 역량, 판단 역량, 행위 역량, 방법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⁵⁾ 학생들의 역량 신장을 위해 그 방향에 맞추어 집필되었다.

첫째, 이주민의 이주 배경을 다루고 있다. 이민 개념에 대한 어원과 함께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독일로 이주를 오는지, 이주를 왜 하는지, 이주하는 이유에 대해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들을 다루었다.

둘째, 독일의 인구 변화와 경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독일 인구에서 이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독일 경제에 이주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셋째, 이주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주민(난민 포함)에 대한 독일의 찬성 측과 반대 측 진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독일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신문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주민의 통합을 다루고 있다. 독일이 통합되었는지, 통합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이민자의 통합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성공적인 통합이었는지, 실패한 통합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특정 도시를 예로 들어 이민 도시로 언급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다루고 있다.

다섯째, 이민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5년에 발효된 독일 이민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주 노동을 예시로 전문인력 이민, 비전문인력 이민 등의 이민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난민과 망명자 이주 정책을 다루고 있다. 또 정치인들의 독일 이주자의 한계 설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루고 있다.

여섯째, 하나의 대단원에서 독일 이민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이 다문화 사회가 된 배경에서부터 이주자들의 통합까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5) 분석 역량은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과정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집단적이고 갈등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은 집단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판단 역량은 분석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확고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 역량은 궁극적인 정치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정치와 사회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법 역량은 정치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한국과 독일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가 다문화 관련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비교 대상을 독일 교과서로 한 것은,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함에 따라 이들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2005년 이민법을 발효한 후, 이민 정책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변화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독일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교과서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문화 사회의 배경이 되는 이민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문화를 사회 변동의 현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다문화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 설명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 우리 사회, 정치, 경제에 주는 영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 사회 교과서는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문 기사, 저널 등의 글을 인용해서 기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이 이주민(혹은 난민)이 독일 사회에 주는 사회적 및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토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과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외국인의 사회 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갈등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할 뿐이다. 또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뿐이다. 사회과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문화 사례와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정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다문화 정책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술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 있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 독일 교과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탐구 활동으로는 정책을 조사하고, 토의·토론해 보도록 한다. 사회 교과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나 소재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 관련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예컨

대, 사회과의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온 다문화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다문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에도 언급되고 있는 사회통합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통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독일은 통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 통합과 관련된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진술을 보여준 뒤, 평가해 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었으며, 다문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문화가 우리 사회, 정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사회통합은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다문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가? 다문화에 대해 동료들과 충분히 토의하였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동관, 정영태, 박민정, 장주영(2018). 한국의 이주동향 2018. IOM이민정책연구원.
- 강동관, 김원숙, 민지원, 박성일, 양윤희, 이상지, 현채민(2017).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 강진웅(2016). 초등 사회과의 다문화교육 -탈민족화와 재민족화의 역설. 사회과교육, 55(3), 1-19.
- 교육부(2022).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박윤경(2011). 초등 사회과 다문화 교육과정 및 수업안 개발 연구. 시민교육연구, 43(2), 57-90.
- 설규주(2012). 초·중고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문화’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5(1), 1-28.
- 설규주(2018). 사회 교과서 속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0(2), 99-135.
- 오은순, 홍선주, 김민정, 모경환, 김선혜, 안지혜(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I)-사회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재운(2018). 현행 초등학교 사회(역사)교과서의 다문화 인식. 현대사회와 다문화, 8(2), 95-118.
- 은지용, 모경환(2018).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인권 교육의 실태 및 과제. 교육문화연구, 24(1), 7-31.
- 이정우(2012).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다문화사회 관련 단위내용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30, 38-63.
- 정경연, 황수경(2014). 다문화 시민성 형성을 위한 초등 사회과 수업안 개발 및 적용: 국정교과서 6학년 2학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8(1), 83-107.
- 정문성, 전영은(2015).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8(4), 181-205.

- 전영은(2018). 다문화교육에서 활용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에 관한 문화인지론적 연구: 신체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3(6), 33-70.
- 조대훈(2014).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관점 분석. *교육연구*, 59, 67-87.
- 조영달, 전제철, 박윤경(2009).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필자 소개

독일 Marburg 대학교에서 문화예술미디어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다문화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교육, 연구방법, 저출산·고령화, 통일교육, 독일 정치교육 등에 관심이 있다.